



지구촌  
한류 현장

# 1 방탄소년단, 美 타임 선정 '차세대 리더'

클 이윤영 기자



방탄소년단(BTS)이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의 '차세대 리더'(Next Generation Leaders)로 선정돼 커버를 장식했다.

타임은 10월 22일 자 최신호 커버에 방탄소년단의 사진이 실린다는 사실을 10월 10일 예고하고 '어떻게 BTS가 세계를 접수했나'라는 제목의 소개 기사를 온라인판에 먼저 게재했다.

타임은 "BTS가 비틀스, 원디렉션과 같은 '심쿵'(heartthrob)한 외모, 콧가에 맴도는 노래와 뉴키즈온더블록, 엔스크 같은 춤으로 마니아들을 끌어모으며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보이 밴드가 됐다"고 전했다.

타임은 "BTS는 서구 관객의 구미에 맞추려고 하지 않고도 미국 스타디움 공연을 매진시킨 첫 번째 한국 가수라는 신기원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타임은 "1990년대에 시작된 케이팝은 50억 달러 규모의 산업으로 성장했지만 '아이돌그룹'으로 대표되는 스타들은 서구 시장에서는 인기를 끌지 못했다"며 "그러나 BTS는 새로운 룰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BTS가 기존 아이돌그룹과 같은 요소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결점을 오히려 음악의 소재로 담아내거나 타인과 공감할 수 있는 솔직한 감정들을 노래함으로써 새로운 룰을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또 능숙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음악적 메시지를 SNS로 전파하면서 전 세계 팬들을 끌어모았다고 타임은 설명했다.

방탄소년단의 슈가는 타임 인터뷰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하지는 않았던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다"며 "우리는 고통, 불안, 걱정 등을 이야기했다. 공감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목표였다"고 말했다.

리더 RM은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많은 문제, 딜레마들로 채워져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너 자신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라며 자신들의 앨범 제목인 '러브 유어셀프'는 바로 BTS의 '아이덴티티'라고 말했다.

BTS와 협업한 미국의 유명 DJ 스티브 아이키의 한국어로 된 BTS의 노래가 세계시장을 강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세계적 현상이 되기 위해 노래가 꼭 영어일 필요는 없다는 걸 보여준 증거"라고 말했다고 타임은 전했다.

## 2

# “브라질 케이팝 열기 한국어 학습 열풍으로”

글 김재순 상파울루 특파원



사진 | 브라질 일간지 에스타두 지 상파울루 제공

상파울루 시립문화원에서 케이팝 음악에 맞춰 카바덴스를 연습하는 학생들

브라질에서 케이팝(K-Pop) 인기가 확산하면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고 브라질 유력 일간지 에스타두 지 상파울루가 10월 2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1990년대 브라질에서 '스파이스 걸스'와 '백 스트리트 보이즈' 등이 인기를 끌면서 영어 학습 붐이 일었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지금은 케이팝과 한국어 배우기가 이를 대체하고 있다고 전했다.

케이팝의 세계적 성공이 청소년들을 한국어 강좌와 인터넷 그룹 학습, 유튜브 등 온라인 비디오 강의로 이끌고 있다는 것이다.

형제·친구들과 모임을 만들어 2개월 전부터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대학생 이사벨라 시우바(20)는 "예전엔 한국어를 전혀 몰랐지만, 그동안 강의를 들으며 한국어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9월 상파울루시에서 열린 한국의 인기 걸그룹 마마무의 공연을 봤다는 시우바는 "홀로그램처럼 만질 수 없었던 사람들을 직접 볼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 감동적이었다"고 공연 당시 느낌을 떠올렸다.

또 다른 대학생 이사벨라 파바레투(21)는 K-드라마(한국 드라마)의 열렬한 팬이다. "발음이 일부 어렵기는 하지만,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파바레투는 한국어를 더욱 완벽하게 배우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상파울루에서는 한국문화원과 한국교육원 등이 한국어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케이팝·K-드라마 관련 행사가 많이 열리고, K-뷰티(한국 화장품)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도 나왔다. 한류 콘텐츠가 점차 다양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신호들이다.

이에 앞서 대형 미디어 그룹 폴라(Folha)가 운영하는 뉴스포털 UOL은 지난 8월 말 케이팝이 브라질 학생들에게 한국 유학의 꿈을 키우는 중요한 동기가 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한국의 교육 환경이 세계적인 수준인 데다 한국 정부의 장학금 지원을 받을 기회가 있다는 점에 브라질 학생들이 큰 관심을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상파울루 한국교육원이 지난해부터 운영하는 유학센터는 브라질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브라질에서 케이팝의 인기는 2012년부터 본격화했다. 그해 월드스타 사이의 '강남스타일'은 브라질에서도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최근에는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에 열광하면서 케이팝은 브라질에서 대중문화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 3

# 태국서 한국어 교육용 교과서 6권 완성

글 김상훈 방콕 특파원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태국이다.

전 세계적 한국어 학습 청소년 13만여 명 가운데 30%에 육박하는 3만7천여 명이 태국에 몰려 있다.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한 태국 학교는 118개교, 지난해 치른 첫 한국어 대학입시 응시자는 5천500여 명에 달한다.

하지만 현지 학생들은 그동안 정식 교과서가 없어 한국에서 제작한 외국인 대학생용 교재를 쓰거나 교사들이 자체적으로 짜깁기해 만든 교재를 써왔다

이에 한국과 태국은 2015년 중·고교생용 교과서 제작에 들어갔다.

3년 이상 태국에서 근무한 한국인 교원을 중심으로 현지 사정에 맞는 교과서 개발 계획을 세웠고, 태국 대학의 한국어과 교수와 이화여대 언어교육원에서 파견된 한국인 교원이 집필을 맡았다.

지난해 10월 1권이 나왔고 올해 3월 2권과 3권이 출간됐다.

태국 한국대사관 부속 한국교육원은 572돌 한글날인 10월 9일 나머지 4~6권을 완성해 공개했다.

2008년 태국 중등학교의 제2외국어 과목으로 한국어가 공식 채택된 지 꼭 10년 만이다.

교과서 완간으로 태국 일선 중등학교에서도 한글 자모음부터,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어휘, 문법까지 발달단계에 따라 한국어를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게 됐다.

한국어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을 배려해 1권 지문은 태국어 비중을 높게 했고, 6권으로 갈수록 한국어 비중을 늘렸다.

책의 내용도 일상생활에 자주 쓰이는 표현으로 시작해 한국의 사회·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단계별로 늘린 것이 특징이다.

태국 한국교육원 김주연 원장은 "한국어 교과서 완간은 태국 중등학교의 한국어 교육 수준을 높이는 것은 물론 더 많은 현지 학교가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노광일 주태국 대사는 교과서 완간 기념식에서 "교과서를 통해 태국 학생들이 한국어를 더 쉽게 배울 길이 열렸다"며 "한국어를 습득하는 학생들이 더 높이 성장하는 인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어 교과서를 손에 든 태국 학생들

## 4 인도 경제·문화 중심지 '뭄바이'에 미술 한류

글 조정호 기자

인도 경제·문화 중심지인 뭄바이에서 열린 2018 뭄바이 비엔날레를 계기로 한국 미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뭄바이 비엔날레 개막 이틀째인 10월 14일 한국 미술작가 120명과 인도 미술작가 80명의 작품을 선보인 행사장 제이제이 예술학교(Sir J.J School of Art) 특별 전시관에는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관람객들은 도자기(문재필·허성보), 소나무(박종규), 나무와 장승(김나미) 등 한국적인 미를 표현한 작품 앞에서 발길을 멈추고 감상하면서 현대미술 경향과 표현기법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스미타 킨칼(Smita Kinkale) 제이제이 예술학교 교수는 "1878년 설립된 인도 최고 미술 교육기관 중 하나로 비엔날레와 같은 대규모 미술전시회가 열리는 것은 거의 없었다"며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다양한 기

법을 표현한 한국 미술과 인도 미술을 함께 볼 수 있어 많은 관람객이 찾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시관을 찾은 제이제이 예술학교 2학년생 삭쉬(19) 양은 "한국 미술작품에 나오는 나무와 집, 사철이 너무 보기 좋아 한국에 꼭 가보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 미술작가들은 인도에서 케이팝과 같은 한류 문화가 미술계로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최성원 작가는 "전통적 서양화에 나오는 유화의 표현기법에서 벗어나 먹을 사용한 한국적인 구도에 신선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국화가 김옥숙 작가는 "한국과 인도 작가들이 이런 유서 깊은 곳에서 전시할 수 있어 너무 뜻깊고 인도 관람객들이 한국 채색화 표현기법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물감으로 표현할 수 없는 오묘한 자연색을 천연 자개로 마무리한 작품(숭속이야기)을 전시한 주미향 작가는 "이번에 처음 인도에서 작품 전시를 했는데 예상외로 뜨거운 관심에 놀랐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성은 뭄바이 총영사는 "뭄바이에서 한국 미술작가 개인전은 가끔 열리지만, 한국과 인도 미술작가들이 대규모 참여해 전시회를 하는 것은 처음이다"며 "마하라슈트라주와 뭄바이에서도 이번 행사에 높은 관심을 갖고 양국의 문화교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뭄바이 비엔날레는 부산에 있는 케이아트국제교류협회, 뭄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인도 TVS 그룹 산하 인도한국문화재단 인코센터(InKo Center)가 공동으로 마련한 행사로 6일 동안 펼쳐졌다.



인도 뭄바이시 제이제이 예술학교 특별 전시관에서 열린 2018 뭄바이 비엔날레에서 관람객들이 한국 작가 작품을 둘러보고 있다.

## 5 日 미야기현에 '제주 올레길' 생겼다

글 전지혜 기자

동일본대지진 피해를 본 일본 미야기현에 올레길이 만들어졌다.

제주올레는 미야기현과 함께 만든 미야기올레 2개 코스를 10월 7~8일 이틀에 걸쳐 개장했다고 밝혔다.

첫날 오전 가라쿠와반도 비지터센터에서 열린 개장식에는 한국에서 온 올레꾼 150여명과 일본 각 지역, 아시아트레일즈에서 참가한 올레꾼 등 500여명이 모여 지역 주민들과 함께 개장을 축하했다.

미야기현은 도쿄에서 300여km 거리에 있는 동북 지방의 관문인 센다이시가 속한 현이다.

미야기올레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줄어든 외국인 여행객과 상처받은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해 올레길을 내고 싶다는 미야기현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미야기현은 지친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제주올레가 지닌 치유의 힘,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등에 주목했다.

미야기현과 제주올레는 2016년 4월 제주에서 첫 논의를 시작한 이후 여러 차례 만나 미야기올레 가능성을 타진해왔다. 지난해 12월에는 제주올레와 미야기현, 게센누마시, 히가시마쓰시마시, 오사키시미야기올레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코스 개발과 답사를 시작해 2개 코스를 우선 개장했다.

미야기올레는 태평양을 바라보며 걷는 웅장한 해안길과 푸른 숲길, 지역 주민과 만나 교류할 수 있는 마을길로 다채롭게 구성됐다. 제주올레나 규슈올레와 닮았으면서도 또 다른 매력이 있다.

게센누마-가라쿠와 코스에서는 거대한 바다를 만날 수 있다. 변화무쌍한 리아스식 해안의 압도적인 절경과 산리쿠 지오파크를 지나며, 사철마다 피는 야생화까지 볼거리가 가득하다.

오쿠마쓰시마 코스는 일본이 자랑하는 3대 절경지, 마쓰시마의 속살을 즐길 수 있는 코스다. 거대한 호수로 착각할 만큼 잔잔한 바다 위에 떠 있는 섬들이 한 폭의 동양화 같은 풍광을 이뤘다는 코스다.

미야기올레는 규슈올레, 몽골올레에 이어 제주올레 세 번째 해외 '자매의 길'이다. 자매의 길은 제주올레가 코스 개발과 지문, 길 표지 디자인을 제공하고 운영방침과 철학까지 공유해 올레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첫 자매의 길인 규슈올레는 2012년 2월 첫 개장 이후 21개 코스가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33명이 걸었다.

지난해 6월 문을 연 몽골올레는 2개 코스를 운영하고 있다.

명숙 제주올레 이사장은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모색하는 모든 올레길이 그렇지만, 동일본 대지진을 겪고, 극복해가고 있는 미야기올레야말로 치유와 상생의 정신에 잘 부합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사진 / 제주올레 제공

일본 미야기올레 첫번째 코스 게센누마-가라쿠와 코스의 오레시와 한조 지역을 한국과 일본 각 지역에서 온 올레꾼들이 걷고 있다.

6

# 한지, 이탈리아 문화재복원 재료로 또 인증받아

글 현윤경 로마 특파원



사진 / 국립문화재연구소 제공

우리의 전통 한지가 세계 문화재의 '수도'로 불리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문화재복원에 적합한 재료라는 인증을 또 한 번 받게 됐다. 이로써 한지의 세계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평가다. 로마에 있는 세계적인 지류복원 전문기관인 이탈리아 국립기록유산보존복원중앙연구소(ICPAL)는 한국 지역 공방들에서 제작한 복원용 전통 한지 8종을 대한 평가를 진행해 이 가운데 1종에 대한 인증을 완료했다. ICPAL은 이에 따라 10월 16일 로마 중심가에 있는 본부에서 인증서 전달식을 열고, 이동식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 학센터장에게 인증서를 건넸다.

이로써 ICPAL에서 인증을 받은 한지는 총 3종으로 증가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월 16일 이탈리아 로마의 국립기록유산보존복원중앙연구소에서 한지를 이용해 복원된 이탈리아 문화재를 살펴보고 있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2016년 우리 한지 2종에 대해 이탈리아 문화재복원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데 이어, 작년 상반기 다른 8종에 대해 추가로 문화재 복원력 인증 실험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 인증을 획득한 한지는 2016년에 인증을 받은 2종과 마찬가지로 경남 의령의 신현세 전통 한지 공방에서 제작한 한지다. ICPAL은 나머지 7종에 대해서도 내년까지 인증 실험을 끝마칠 계획이다. 우리측에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탈리아 측에서 잔루카 바카 문화유산 차관, 마리아 레티지아 세바스티아니 ICPAL 소장 등이 참석한 이날 전달식에서는 최근 한지를 사용해 복원됐거나, 복원 중인 이탈리아 중요 문화재들도 공개됐다. ICPAL은 그동안 한지를 사용해 시칠리아섬 카타니아 대학에서 17~18세기에 작성된 학위를 모은 '카타니아의 학위집', 로마 근교의 그로타페라타 국립국가유물도서관에 소장된 '에티오피아 자필서적', '사르데냐 가문의 문장집' 등을 성공적으로 복원했다. 현재는 '중세'라는 말을 처음으로 쓴 이탈리아 역사가이자 인본주의자 플라비오 비온도의 15세기 활자 인쇄본인 '카말돌리 수도사 도서관의 플라비오 비온도 활자 인쇄본' '시리아 가톨릭 성서' 등을 한지를 사용해 보존 처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축사를 한 도종환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탈리아 방문을 앞두고 개최된 오늘 행사는 한국과 이탈리아 문화교류에 있어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뜻깊은 행사"라며 "앞으로 이탈리아의 오랜 역사가 담긴 문화재를 복원하는 데 한지가 더 널리 쓰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이탈리아에서 인증을 받은 우리 한지가 늘어남에 따라 그동안 서양의 문화재복원에 광범위하게 사용돼 온 일본의 화지를 대체하는 재료로서 한지의 활용 가능성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7

# 영국 한국영화축제 개막 7개 부문 55편 소개

글 박대한 런던 특파원



제13회 런던한국영화제 공식 포스터

영국에서 불고 있는 K팝 열풍을 영화가 이어간다. 주영 한국문화원은 11월 1~25일 제13회 런던 한국영화제를 런던 내 10개 상영관과 지방 6개 도시 영화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영화제의 테마는 '일상의 조각'(A Slice of Everyday Life)으로 정해졌다. 한국 영화 55편이 시네마 나무, 인디영화, 여성영화, 고전영화, 애니메이션 등 7개 부문별로 나누어 소개된다.

개막작은 전고운 감독의 '소공녀'(2017), 폐막작은 말레네 최 감독의 '회귀'(2018)가 각각 선정됐다. '소공녀'는 청년 주거문제 등을 다룬 작품으로 부산국제영화제와 판타지아국제영화제에서 수상했다. 전 감독은 1일 런던 픽처하우스센트럴에서 열리는 영화제 개막식에 직접 참석해 영국 관객을 만났다.

폐막작 '회귀'는 덴마크 입양아인 주인공이 친부모를 찾아 한국을 방문하는 이야기로 감독과 주연배우 카롤린 소피 리의 자전적 경험을 바탕으로 했다.

이 밖에 홍상수 감독의 '강원도의 힘'(1998), 허진호 감독의 '8월의 크리스마스'(1998)를 비롯해 배우 문소리가 감독을 맡은 '여배우는 오늘도'(2017) 등 일상을 소재로 한 다양한 영화가 상영된다.

올해 영화제는 13일 런던에서 폐막작을 상영한 뒤 노팅엄, 셰필드, 글라스고, 맨체스터, 벨파스트, 에든버러 등 6개 도시에서 순회 상영을 할 예정이다.

주영 한국문화원 옹호성 원장은 "기획 단계부터 현지 영화인들의 참여를 통해 영국 관객의 공감을 살 수 있도록 했다"면서 "영화를 통해 한국 사회와 한국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넓히는 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



영화 '소공녀'